

# 나주교육청, 성장 더딘 학생 지원 마련

### 성장속도 느린 학생 보조 위한 프로그램 추진 프로그램 실효성 높이기 위해 유관기관 참여

나주교육청에서 2020년 조금 더 디게 성장하는 학생들을 위해 특별한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전년도에 추진되었던 부적응 학생 및 위기학생 대상 프로그램을 분석·나주교육청정보안하고 체계화한 것이다.

디게 성장하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대상학생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 운영된다. 먼저 부적응 학생 대상 학교적응 프로그램은 전년도 유관기관 연계 캠프형식의 프로그램을 수정, 학생 개인별 적응요인 분석을 통한 맞춤형으로 연중 운영한다. 다음으로 동시대 상담심리학과와 연계한 '서포트-Wee' 프로그램은 대상 학생수를 늘리고 교사와의 협업방식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적응력 향상 프로그램은 단위학교 차원의 소수 부적응 학생 대상 맞춤형 교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대상 학생은 자주 미인정 결석을 한다든지, 학교폭력에 자주 휘말린다든지, 자주 교칙을 위반하는 학생들이다.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서, 청소년수련관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에서도 함께 참여한다.

동시대학교 상담심리학과와 연계 운영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서포트-Wee' 프로그램은 수업 시간 중 돌발행동 등에 따른 안전 사고 및 학생지도 어려움을 해소하는 맞춤형 학생적응 지원을 목표로 한다.

지원을 요청한 학교는 동시대학교 상담심리학과 학생들로부터 관심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4주간 받을 수 있고, 참여대학생들은 Wee클래스 및 학교 현장에서 상담 실무능력을 익힐 수 있어 상호 윈-윈 할 수 있다. 나주교육청-동시대학교 간의 업무협약에 의해 참여 대학생들의 봉사시간은 현장 실습학점으로 인정된다.

나주 학교지원센터에서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활용, 디게 성장 중인 학생들이 사회적 지지, 자아탄력성, 사회적 문제 해결능력을 바탕으로 자기효능감을 획득하여 스스로 미래지향적인 삶을 추구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 광양, 학교교육과정 계획 공유 워크숍

광양교육지원청은 배움중심 수업 실천으로 교사와 학생이 즐겁게 참여하는 수업 혁신을 위해 '마을을 담은 학교교육과정 운영'을 역점과제로 선정하고 학생 자기주도 학습으로 삶과 삶이 연결되는 행복한 배움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광양교육지원청은 지난 해 마을을 담은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기반 조성에 주력하여 교원 연수, 읍·면·동사무소와 지역 기관 지원 시스템 구축, 상시지원단 운영, 인적·물적 자원 발굴과 자료 공유 등에 노력했다.

지난 17일에는 관내 교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 마을을 담은 학교교육과정 워크숍'을 실시했다. 학교급별 특성을 고려하여 초·중·고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마을 교육과정 관련 강의와 함께 학교별로 2020학년도 마을을 담은 학교교육과정 운영 계획 및 사례를 이야기 나누고 지역 자원 정보를 교환했다. 또한 마을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현장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교육지원청 지원 사항 등에 관해 심도 있게 토의했다.

특히 이날 워크숍은 지역 시설과 자원을 활용하여 광양시문화도시사업단(이하 사업단)의 협조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박시훈 광양시문화도시사업단장은 타지역에서의 오랜 마을 교육공동체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와 마을이 어떻게 만날까?'를 주제로 초등 강의를 진행해 마을과 지역사회를 활용한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또한 사업단 회의실을 중등 워크숍 장소로 무료 제공하고 사업단 활동 내용과 학교교육과정과의 연계 방안 등에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광양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마을을 담은 학교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올해 2억 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학교가 마을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역별, 학교별 담당 장학사 상시 모니터링, 마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을 위한 교사 연수와 운영 사례 공유, 마을을 담은 학교교육과정 운영 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광주시교육청 김경빈 과장, 우수공무원 녹조근정훈장 수상

광주시교육청 금호평생교육관 김경빈 운영과장(59세)이 2019년도 우수공무원에 선정돼 녹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

특히 김경빈 과장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인 단위학교의 교육 자치를 강화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광주시교육청이 전국 최

초로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데 앞장 서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를 범제화 하고 학교 구성원 모두가 학교운영에 주체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또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육협력 체제를 강화했으며,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합하는 학부모 교육

을 펼쳐 교육부 우수사례로도 선정됐다. 교육기부를 통해 학교별 고문 변호사제를 운영해 학교폭력과 그에 따른 분쟁 해결에 크게 기여한 공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경빈 과장은 "학교의 주인은 학교 구성원 모두이며, 모든 주체들이 유기적으로 소통할 때 진정한

학교 자치를 꽃 피울 수 있다"며 "공직자로서 학교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과분하고 영광스러운 훈장을 받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국정 각 분야에서 창의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해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기에 기여한 공무원을 발굴해 매년 '우수공무원 정부포상'을 시행중이다.

## 전남교육청, 학교폭력 업무지원 체계 구축 총력

전남교육청이 교육현장의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한 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전남교육청은 2월 17일부터 28일까지 전남여성가족재단 및 전남교육연구정보원에서 학교폭력 업무 전문 23명과 23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연수를 진행 중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20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라 시·군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설치했으며,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예방 및 사안처리 업무 지원 인력이 요구됐다.

이에 도교육청은 최근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예방 및 사안처리를 지원할 전남 주무관 19명을 선

발했고, 일반직 주무관 중 업무를 담당할 4명을 추가해 전문성 향상을 위해 연수의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연수에서 학교폭력 관련 법령의 이해, 학교폭력 예방 및 사안처리의 이해, 회복적 생활교육의 이해, 전담기구 구성 및 심의 절차 실습, 학교폭력 화해 조정 실습 등을 통해 담당자들의

역량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한,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업무 지원 체계를 안정화시키고 학교 업무 지원을 통한 학교 교육력 제고에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안정적인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오는 2월 20일과 21일 권역 별로 심의위원회위원장 연수가 진행되며 교육지원청 별 위원연수도 2월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도교육청은 갈등조정지원단을 통해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허성은 기자

## 장흥고, 2020학년도 신입생 진로 캠프 운영

장흥고등학교는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 간 '2020. 신입생 진로캠프'를 운영했다. 이번 신입생 진로캠프는 2020학년도 신입생 120여명이 대상이었으며, 고등학교 진학 전 학업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자기주도적 진로 설계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행사는 전남 진로·진학지원단 소속 교사 6명이 1반부터 6반까지 순회하며 진행했다. 빠빠한 일정에도 학생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로 예상보다 열띤 분위기 속에서 내실 있게 운영되었다. 진로캠프 담당 교사 김OO 교사는

"생각했던 것보다 학생들의 관심과 집중력이 높아 준비해 간 내용을 알차게 전달할 수 있었다. 장흥고 신입생들의 진로 설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히며 적잖게 놀라는 모습이었다.

이날 설명회에 참여한 신입생 이OO 학생은 "고등학교에 진학 후, 어떻게 공부해야할지 막연하고 답답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학업 플래너를 작성하고, 진로 준비를 해야할지 조금은 감을 잡을 수 있었다. 큰 도움이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 보성, 교육공무직 조리능력 배양 교육 실시

보성교육지원청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순천요리화원'에서 교육공무직원 조리사, 조리실무사(총 14명)를 대상으로 조리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학교급식종사원들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이번

교육은 학교급식의 질을 한 단계 높이며, 위생 및 안전의식을 함양하여 안전하고 바른 학교 급식을 위한 강의와 실습으로 구성되었다.

교육장은 "앞으로도 조리능력 향상에 힘쓰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성-김덕순 기자

